

'2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09	9.17	회의실	11/12	4	1	16	○	-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장은백·정인영·정희(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2	1	0	1	14	0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4	0	0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용광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지역발전 효과 얼마나? 편,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부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사람들 인터뷰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9)	'25.9
"	<시사용광로> 막 오른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주목할 점은? 편, 출연자 준비 미흡으로 매끄럽지 못한 진행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9)	"
"	<시사용광로> '레거시' 관련 내용 진행. 시청자 이해 어려움 등 고려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9)	"
"	AI 집적단지 등 관련 내용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정청래 대표 “AI 핵심거점 지원”(9.19), 광주시장-대학 총장,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협력”(9.30), <뉴스데스크> 국가AI컴퓨팅센터 카운트다운··20일~21일 사업계획서 접수(10.8) 등 방송 조치	"
"	출산율, 지역소멸 관련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고향이니까 살죠”··평화로운 낙원 ‘자봉도’(9.28), <뉴스투데이> “다시 마을로”··학생이 말하는 지역소멸(9.29), 라디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9.19, 9.26, 10.3), <두근두근 동창회>(10.11) 등 방송 조치	"
"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적극 홍보 바람	<뉴스데스크> 22일~28일 광주에서 2025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9.19), 세계장애인양궁대회 5.18민주광장에서 결승 경기(9.27) 등 방송 조치	"
"	국제 스포츠 경기 보도, 단순한 하이라이트와 성적 발표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발전 도모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9)	"
"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운영 미흡 등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고향사랑기부금이 ‘효자’ 역할(10.7), ‘손과 발’이 돼주는 고향사랑기부금(10.8) ‘인구 절벽’··	"

		고향 발전 마중물로(10.9), 소중한 기부금은 어르신 배려에 먼저(10.10), 고향사랑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나눔(10.11) 등 방송 조치	
"	단순한 정보제공 뉴스 반복 지양.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보도 필요	<뉴스데스크> '한 걸음 더' 수백만원 무단 결제돼도 몰라(9.23), '취재가 시작되자' "휴대폰값 받고 잠적"··SKT대리점서 수십 명 피해(10.13) 등 심층뉴스 방송 조치	"
"	문화예술 관련 뉴스 많아지길 바람	<뉴스데스크> 인간·자연·기술이 재구성하는 <감각 환경>(9.19), 제13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개최(9.20), 고 문병란 시인 10주기 추모식··추모시집 '직녀에게' 발간(9.21), 책과 함께 한 북BOOK적한 하루(9.27), ACC 아시아 문화 주간 다음달 1일 개막(9.27), <뉴스투데이> 윤상원 열사 창작 음악극 10월 11일 공연(9.26), <시사용광로> 문화수도 광주, 어디 서 있나?(9.25) 등 방송 조치	"
"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 소개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9)	"
"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계속해서 소개해 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호남발전특위 광주에서 첫 회의··정책 발굴 시동(9.24) 등 방송 조치	"
교양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내용을 잘 다뤄주길 바람	다큐멘터리 <세계 속의 마한>(10.8),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10.12) 등 방송 조치	"
기타(방통심의위원회)	방송사고 발생 후 사실 고지 등 조치 하지 않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했기에 계도함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9.29)	"
합계		14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용광로> 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지역발전 효과 얼마나? 편,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부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사람들 인터뷰 부족 아쉬움	토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인터뷰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	<시사용광로> 막 오른 광주세계 양궁선수권, 주목할 점은? 편, 출연자 준비 미흡으로 매끄럽지 못한 진행 아쉬움	생방송 토론에 앞서 주제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알리겠음	○		
"	<시사용광로> '레거시' 관련 내용 진행. 시청자 이해 어려움 등	토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고려 필요	력하고 있음. 지속해 노력하겠음			
"	AI 집적단지 등 관련 내용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람	AI 국가컴퓨팅사업 유치를 비롯해 AI 사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보도하겠음	○		
"	출산율, 지역소멸 관련 보도 바람	추석 기획보도 '나의 살던 고향은'을 비롯해 지역소멸 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도해나가겠음	○		
"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적극 홍보 바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치러지는 각종 국제체육대회를 적극 보도해나가겠음	○		
"	국제 스포츠 경기 보도, 단순한 하이라이트와 성적 발표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발전 도모 필요	국제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두고 보도해나가겠음	○		
"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운영 미흡 등 다뤄주길 바람	추석 연휴에 '나의 살던 고향은'을 기획 보도함. 앞으로도 계속 관심 두고 보도해나가겠음	○		
"	단순한 정보제공 뉴스 반복 지양.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보도 필요	단순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심층적이고 다채로운 분석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요구하겠음	○		
"	문화예술 관련 뉴스 많아지길 바람	타사보다 문화예술에 큰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조를 유지해나가겠음	○		
"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 소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행사가 지역민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보도에 힘쓰겠음	○		
"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계속해서 소개해 주길 바람	호남특위 활동과 성과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적시에 잘 알려 나가겠음	○		
교양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내용을 잘 다뤄주길 바람	다양한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기타(방 통심의 위원회)	방송사고 발생 후 사실 고지 등 조치하지 않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했기에 계도함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유의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 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9월)

일시	2025년 9월 17일(목)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박양우 · 박종수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 원(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반갑다. 아직 낮은 더위가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 같다. 자연의 순리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지난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달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이 있었다. 미국 관세 인상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긴장했고 그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이 있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도 좋지 못한 일이 됐다. 세상이 어수선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다툼이 있다. 갈수록 세상은 험해져 가는 것 같다. 폭력이 난무하고 극우화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역사의 후퇴를 굉장히 걱정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도 광주MBC는 곳곳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9월 회의를 개최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 다시 뵈게 돼 반갑다. 지난 8월까지 돌아보고 회사 수익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하반기에 좋은 콘텐츠 만들고, 시민이 사랑하는 방송사가 되도록 잘해 보고자 한다. 창사 61주년이 10월 8일인데 창사에 맞춰 콘텐츠, 보도 기획 잘 준비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 10월 11일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11월에는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주요 실적부터 보고하겠다. TV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8월 20일(수) 의회의 인물에 강수훈, 이귀순 의원이 출연했고, 26일 전설의 가들에는 박민 선수 편이 방송됐다. 9월 10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11일 담양 도보여행, 17일 잘 먹고 잘사는 법에는 유한별 변호사가 출연해 방송했다. TV 특집편성 및 녹화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9월 11일 AICA 인공지능 집적단지 비전 선포식 생방송, 13일(토) <우리가락 우리문화> '국립남도국악원' 편 전국 방송, 16일(화) 광주 북구청장 타운홀 미팅 녹화가 있었다. 라디오와 디지털콘텐츠 부문에서는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3시> <시사톡 라이브> <라디오 칼럼> 정규방송을 했고, 9월 12일 지역 MBC 공동제작 <지역생존AI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 9부를 방송했다. <더 프레지던트> 박승, 송영길 편 업로드, <전설의 타이거즈> 전설의 라이벌 송진우, 김평호 편 업로드를 하는 등 콘텐츠 제작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9월 3일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 MBC 6개 사 공동제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작품상을 받았다. 주요 계획으로 9월 22일 <광주 MBC보다>에서는 새 코너로 시사 토크 '신지동설'을 방송한다. 라파 제작지원 <두근두근 동창회>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창사특집으로 3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창사를 기념해 윤색 특집을 준비하겠다. AI 데이터 사업-원시데이터 업로드 작업, AI 실증사업-<우리가락 우리문화> AI 특집 준비, 2025 김치대전 제작 준비하겠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부터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집중 보도를 했다. 개최 이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뉴스데스크>는 물론 <시사용광로>를 통해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었다. 기자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치행정팀과 교육사회팀의 업무를 조율하고 신입사원이 충원될 때까지 협업하기로 했다. 홈페이지는 가독성이 좋고, 로컬 콘텐츠를 잘 전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다. 10월 오픈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5.18기록관 코너를 구성하고 있는데 5.18 콘텐츠의 공식적인 기록 창구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실록 역할이 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대담 3부작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진행으로 준비 중이다. 각각 지방분권, 청년 정치, 정치 혁신의 길을 키워드로 해서 3부작 토크를 방송할 것이다. <시사용광로>에서는 8월 21일 국정과제에

담긴 전남 현안, 실현 과제는?. 28일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지역발전 효과 얼마나?, 9월 4일 막 오른 광주세계양궁대회, 주목할 점은?, 11일 개혁법안 처리 앞둔 정국은?을 주제로 각각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광주MBC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한다. 가독성 좋고, 우리 콘텐츠를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네이버 입점 심사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뉴스 영향력 높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추석 기획으로 '우리 효자 고향사랑기부제' 보도하는데, 추석 연휴 동안 매일 1편씩 기획보도를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시군구별로 살피는 10편 연속보도다. 광주MBC 창사 61주년 특집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의 길' 대담 3부작을 준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을 모실 예정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현직을 떠나니까 광주에 이런 게 있었구나 잠깐 보고 스쳐 갔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 보고서항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 장은백 위원 : -대담 3부작은 나름대로 고민했을 텐데 어떤 취지인지 궁금하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12월 3일이 계엄 1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지역 정치나 지역 인권 차원에서 도 그렇고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이다.
- 설제학 위원 : -세 분의 패널을 특별히 초대한 의도가 있는지와 '대한민국의 길'이라 하면 국힘쪽 인사도 섭외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정당의 다양성, 균형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인사들이 라인 업에 보이지 않는 게 사인데, 제작진이 고민 안 한 게 아니다. 현실정치를 얘기하는 것보다 소수 정당의 참여 정치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경수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관료로서 얘기,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 조국 위원장이 논란이 많았다. 섭외가 적절한지 우려가 있었고, 제작진과 토론했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민주당 일색의 정치 구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대안 정치의 전망을 들여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박양우 위원장 :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하실 때 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별 배분도 검토해보면 의미 있지 않겠는가.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확정 단계가 아니고 기획 단계니까 고민하도록 하겠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MBC 보다>의 시사 코너에 적극 수용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 의견제시사항을 듣도록 하겠다.
- 박종수 위원 : -<시사용광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지역발전 효과 얼마나? 편에서는 민주당 소속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는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 및 논의하였다. 특위의 조직 목적과 활동 배경 설명, 호남지역의 발전 현황 진단, 인프라, 정책, 경제적 격차, 지역 자원 활용 등, 특위가 마련하거나 제안한 정책 및 계획들, 지역주민, 전문 패널, 혹은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 지적, 향후 과제와 기대 사항 정리 등을 내용으로 했다. 전현직 정치인이자 지역 출신 리더들이 참여하여 정책 제언 및 현실의 문제점을 내놓는 점이 설득력 있었다. 호남발전이라는 주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 격차, 지역 인프라, 지방 소멸 위기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시청자 관심도가 높았을 것이다. 광주·목포·여수MBC가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지역 간 비교와 균형이 좀 더 고려될 여지가 있었으며 생방송의 긴장감과 실시간 질의응답 혹은 피드백을 통한 소통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였다. 정책 제안과 현실 진단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히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생각해보게 했다는 게 잘한 점인 듯싶다. 또한 정책이나 계획은 제시되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떤 수치나 사례로 '얼마나 개선되었다' 또는 '얼마나 효과가 있다'라는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했으며, 주민, 중소기업자, 농어촌지역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적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
- 반수경 위원 : -<시사용광로> '막 오른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주목할 점은?' 편에서는 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2016년 금메달 최미선 양궁선수,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가 출연해서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양궁대회 관련 다양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기적으로도 홍보 효과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해줌으로써 몰랐던 양궁 종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게스트가 준비가 미흡한 탓인지 아니면 원래 말하는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신 분인지 특히 숫자를 말할 때나 어떤 단어를 언급하면서 진행할 때 더듬거리는 상황이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였다. 광주세계양궁대회 유치 효과 이어가려면? 관련 주제에서는 내용을 진행할 때 '레거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면서 레거시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 시간을 진행했다. 물론 자막에 한참을 레거시의 개념 정의를 띄워놓긴 했지만 많은 일반시민, 특히 <시사용광로>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시청하는 일반시민들이 레거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움이 있었다.

○ 설제학 위원 : -9월 4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양궁대회를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초반에 언급된 오프닝 쇼에 관한 내용도 일반 시민들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메달리스트이며 현역에 있는 최미선 선수가 설명해 주니 반갑기도 하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숙식에 대한 의문이 들 무렵, 적절하게 질문해 주시는 한선 님의 진행도 너무 좋았다. 그 밖에도 한선 님의 적절한 질문에 따른 이연 사무처장님의 자세한 답변들도 매우 명쾌했다. 김민철 교수님의 스포츠산업학 전문가로서 제시해주시는 의견들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하며 조금도 지루함이 없는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 양지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 '항저우의 광복' 편에서는 항저우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시행한 다양한 행사와 인터뷰를 방송했다. 항저우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광복 8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후손들은 역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사를 통해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항저우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에 대한 보도는 매우 특별한 기념식이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보인다. 앞으로도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내용을 잘 다뤄주길 바란다.

-광주의 AI 집적단지 완성과 AI 중심도시 광주를 외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비전 선포식> 방송을 통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다만 생방송이다 보니 내외빈 소개 영상이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흘러가 버린 점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완성 경과보고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단장님의 이야기로만 보고가 되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AI 집적단지 등 관련 내용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란다.

○ 유한별 위원 : -<뉴스데스크>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 영광군...비결은' 뉴스를 시청했다. 우리나라 최근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국가경쟁력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중 하나인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영광군은 지난해 1.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0.75명의 두 배가 넘었는데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광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정책과 선제적으로 인구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 것이 주효했다.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단순히 젊은 세대의 미출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을 촉구하고, 영광군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남 나머지 지역에서도 출산율이나 지역소멸 관련해 보도를 계속하며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9월 5일부터 펼쳐진 광주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궁대회 기간 1만 3천 5백 명의 내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이 대회 동안 숙박이나 식비 등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 대회의 파급효과로 인해 침체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시설 보수와 홍보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브랜드의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광주라는 도시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다.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큰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길 바라고, 광주MBC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가 <뉴스데스크>와 <시사용광로>를 통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준비 단계부터 대회

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대회의 현장감과 주요 의미가 잘 전달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제 스포츠 경기 보도에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반영되기를 제안한다. 우선, 경기 결과와 선수 성과 전달에 치중하기보다 선수들의 준비 과정,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지역 상권의 변화 등 경기 이면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이 대회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사용광로>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경기의 의미를 정책·경제·문화적 관점에서 짚되,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곁들여 대회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회 개최가 지역관광 활성화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국제 스포츠 경기 보도는 단순한 하이라이트와 성적 발표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된 맥락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이 더해질 때 광주MBC는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 중계가 아닌 지역발전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석 연휴에 맞춰 기획된 '우리 효자 고향사랑기부제' 10편 연속보도는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평가한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시청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활용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기부제의 성과와 장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지자체 간 기부금 편중, 홍보·운영 미흡 등 제도의 한계와 보완 과제도 함께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미진 위원 : -9월 5일부터 열린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오프닝 쇼를 현장으로 연결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어서 홍보 효과가 컸던 것 같다. 또한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기대감, 흥분을 생생하게 전해주어 대회 개최가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욱이 대회의 결승전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어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시사용광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지역발전 효과 얼마나' 편을 시청했다. 지난 8월 21일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가운데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호남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신산업, 경제, 금융 분야의 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지역 상권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민주화를 위한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한다.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장은백 위원 : -보도에 관심이 많아 <뉴스데스크>를 항상 챙겨보는 편이다. 대부분 패턴이 보인다. 매일 내보내는 새로운 이야기, 내가 잘 알지만 자세하게 정성스럽게 끈질기게 시청자에게 잊지 않고 상기시켜주고 가치 있는 뉴스를 기대한다. 최근에 부합하는 보도는 참고형 약국에 대한 언급이었다. 정보를 주면서도 내용이 좋았다. 이와 달리 안타까운 뉴스 패턴이 보여 지적하고자 한다. 9월 들어 쌀값, 배값, 과일값에 대해 지속해 기사를 냈다. 내용이 짧고 그냥 그렇다는 단편적 정보만 주고 있었다. 경제 기사로 보이는데 가격이 내림세에 있다며 간단하게 제시됐다. 3, 4일에 한 번씩 귀한 <뉴스데스크>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뭔지 의아했다. 학동 재개발구역 관련 뉴스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했다는 식의 단순 스트레이트로 끝이다. 그럼, 기사를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한 줄 내지는 몇 줄 알려주는 게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괜찮다. 뉴스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어떨 때는 정보만으로 유익한 게 있다. 문화행사는 정보만 줘도 고맙고 소개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게 있다. 또 그 이면에 있는 뉴스를 전해줄 때 기분이 좋기도 하다. 어떤 뉴스를 만들 때 고민하겠습니다만, 장은백 위원님 말씀대로 기사 분배하고 할당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다. 참고해서 더 좋은 뉴스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다. 심층취재를 통해 본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모든 기사가 그래야 함에도, 모든 기사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 받아들이고, 조금 더 기자들에게 심층보도나 지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 정인영 위원 : -이번 <시사용광로>에서는 2025 광주세계양궁대회의 개막을 맞아 대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직위 관계자와 현역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스포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각기 다른 시각에서 대회를 조명하고 분석했다. 시청자 처지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회의 준비 과정과 그 안에 담긴 광주 정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긍정적 유산(레거시)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일부 논의가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문화 관광 콘텐츠 연계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또한, 장애인 양궁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만큼, 해당 대회의 의의와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면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더욱 빛났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대회 기간 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후속 보도해 준다면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광주시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희 위원 : -8월 20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방송한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군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강수훈 시의원은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의 시대는 지났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9월 12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광주세계양궁대회의 결승전이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 5.18광장에서 이루어진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 광주시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연맹 회장의 평가가 있었다. 5.18광장을 결승전 장소로 선정한 것은 광주를 알리는데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9월 11일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 보도를 통해 광주에 있는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아시아 유일이라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 강기정 시장의 언급처럼 1년 반 동안 운영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광주가, 국가 AI 집적 단지로 지정되어 AI 사업이 광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AI 중심도시 광주를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
 - 8월 8일 <시사용광로>에서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내용과 관련하여 특위 출범만으로 지역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예산확보 및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특위가 공항 이전 등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잘 추진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특위 활동을 방송하면 좋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지독히도 무덥던 여름이 가고 단풍이 그리워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문화예술 뉴스를 보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 문화예술은 그것을 즐기는 것 자체로도 행복이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최근 광주MBC 뉴스에서 보여주었다. 먼저, 9월 9일 자 오월 어머니들의 그림 전시회인 ‘꽃이 핀 쪽으로’ 뉴스는 특히 좋았다. 광주 오월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숭고한 뜻에도 불구하고 때로 강경한 이미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월 어머니들이 그림 전시회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바람과 꿈을 그림으로 전하는 시도는 보는 이들에게 더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런 문화적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또 방송 뉴스로도 더 자주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전시회가 비록 아마추어의 그림 전시회이긴 하지만 국공립 전시 공간에서 전시해도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뉴스를 대하는 내내 따뜻했다. 다음으로, 9월 11일 자 나주 작은미술관 개관 2주년 전시회 ‘수줍은 고백: 평범한 날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참 좋았다. 화면에 보이는 작품의 수준도 꽤 높게 보였지만 무엇보다 과거 정미소였던 시설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전시회가 열린 것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어서 특히 좋았다. 이 뉴스는 단순히 전시회를 소개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용도가 다한 과거의 시설들이 현재와 미래에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공간 재활용 사례를 전해준 것이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9월 13일 자 ‘양림수작’ 뉴스도 예향 광주를 느끼게 해주었다. 평권마을에서 시민, 특히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 소식은 축제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덤으로 우리의 삶에 훈훈한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뉴스데스크>에서 문화 뉴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화 뉴스는 행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우리의 삶에 여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다중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이제 본격적인 문화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이

런 문화 관련 뉴스가 많아지면 좋겠다.

-기타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도 사항이 있다. 내용은 <정오의 희망곡>에서 출연자가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0초간 무음 지속 후 약 8초간 과실 송출되었음에도 바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방송사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방송사고 발생 시 시청취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에 감사드린다. 심층보도나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본부장은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에 관해 저희가 잘 반영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귀에 담고 되새겨서 잘 진행하겠다. 구성원과 공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지난 한 달 동안도 임직원 여러분 고생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이것으로 시청자위원회 마치겠다.

끝.